

셀트리온, 계약생산 대행사업 확대

동양증권, 2009년 CMO 시장규모 50억달러 ... 다국적 제약기업 추가계약

동양증권증권은 5월27일 오알켄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셀트리온에 대해 CMO(계약생산 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술과 동물세포의 대량 배양기술을 이용해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생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MO 전문기업이다.

동양증권증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31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CMO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CMO시장은 30억달러에 불과하나 바이오신약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2009년에는 5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승규 연구원은 “CMO사업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며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증가에 따른 CMO 수요증가와 다국적 제약기업들과의 추가 계약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매출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향후 CMO 계약건 추이와 바이오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진행 상황, 오알켄의 매출에 따라 기업가치 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7>